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고 시간도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힘든 삶을 살더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능력의 자로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 생애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데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 이라다 (전도서 5장 1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65호 2013년 12월 2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프란시스 교황선출 · 이슬람극단주의 · 동성애진출...

RNS, 허핑턴포스트, 2013년 종교계 10대뉴스 종합 발표

2013년은 종교 뉴스들이 미디어에 앞 다퉈 보도되는 한해였다. 교황의 사망으로만 바티칸의 수장이 변하는 전통이 붕괴됐고, 동성결혼으로 인한 사법부 판례가 미전역을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양분되게 만들었고,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중동에서는 이슬람 전통과 극단이슬람주의간의 갈등으로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아, 커버스토리나 1면 담 기사로 종교 뉴스들이 심심찮게 보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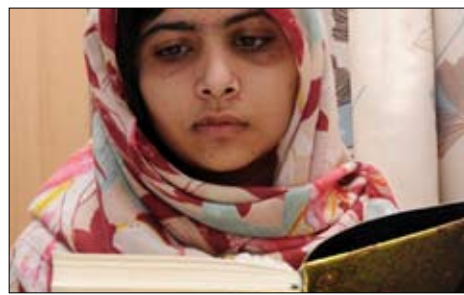
따라서 온라인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Huff)가 선정한 '2013 종교계 10대 뉴스와 미디어에서 종교란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의 연합체인 "종교기자협회"(Religion Newswriters Association)가 선정한 10대 뉴스들을 통해 2013년 한 해는 과연 어떠한 뉴스들이 지구촌의 종교계를 달구었는지를 살펴본다.

1. 로마교황청, 프란시스 교황 선출(RNS, Huff)



발언을 통해 항상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가톨릭 전통을 동성애자들도 성당에 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타임(Time)지가 프란시스 교황을 '2013년 올해의 인물로 커버스토리로 다룰 만큼 교황으로 선출된 지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름으로 트위터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인기를 지구촌 곳곳에서 받고 있다.

2. 파키스탄 소녀 말라라(Malala)와 탈레반 금지 조항 마찰(Huff)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도 일전을 불사하며 지구촌 각지에서 성전을 부르짖고 있는 탈레반(the Taleban)이 끔찍없이 파키스탄 소녀 말라라(Malala Yousafzai)의 고백에 너 다운했다. 그녀는 탈레반이 금지하고 있는 "소녀들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리아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2013년 시작부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그녀의 증언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슬람극단주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녀는 오히려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탈레반 원리를 무색하게 했고, 이는 이슬람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종교의 정의, 즉 극단주의적 이념으로 중무장한 흑백논리가 아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3. 미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과 결혼수호법, 위헌판례(RNS)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의 가장 큰 화두인 "동성결혼"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이,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진보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됐다. 다시 말해 연방대법이 5 대(vs) 4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을 위헌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수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승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 정부로까지 자신들의 해택들을 신장시키기 위해 더욱 더 로비와 압력을 행사할 일리노이와 하와이 주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15, 16번째 주가 되게 만들었다.

(16면으로 계속)

본지가 선정한 2013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3년 역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본지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구촌 한인 디아스포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한인교계관련 뉴스 10개를 선정해 게재하고 2013년을 마무리한다. 순서는 빠른 호수부터 시간 순으로 게재했다. [편집자주]

1. 존엄사 논란 이성은 양 하나님 품으로(제 1422호 10면)



존엄사로 뉴욕교계에 아픔을 줬던 이성은 양(관련기사 제 1403호, 제 1412호)이 2월 10일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성은 양은 이만

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의 딸로 태어났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온 후에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 공부와 음악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UNC Chapel Hill University 졸업 후 밴크오브아메리카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유스교사로 헌신했다.

그는 2011년 11월 6일 뉴욕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자 작장과 신학교를 다니면서 16주간 잘 먹지도 못하고 뛰다가 너무 힘에 겨워 쓰러졌다. 조사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 MSKCC 병원에 기운이 없다고 조사차 들어갔다가 테모달을 5일간 먹은 후 온 몸이 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9월 28일 존엄사 집행승인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부모들은 병원과 투쟁 끝에 지난해 11월 21일 집으로 퇴원한 성은양은 몸을 움직이는 등 차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2. 느림보 행보중인 범남가주 이단대책(제 1428호 9면)

남가주지역 교회들에 침투하는 이단사이비 등에 대해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진우철 목사) 등 12개 교계단체가 의기투합해 대책수립 및 대응을 위해 출범한 범남가주이단대책(이하 이단대책)의 느림보 행보로 인한 이단피해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지난 4월 7일과 8일 다운타운에서 실시된 박옥수 집회에 대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던 가운데 27일 이단대책 실무진이 모여 박옥수 집회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옥수 측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실시 및 집회개최에 대한 정보력 부족과 언론사의 보도가 나간 후 대책수립모임이 이뤄진 점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대책이 유명무실한 유명화 된 기관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단대책의 느림보 행보는 핫라인 개설 및 SNS 등을 통한 교계단체 및 교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됐다.

3. 성지순례와 함께 한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성료(제 1430호 1면)



본지가 주최한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들라 이스라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란 주제로 4월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세미나는 2박3일간의 강의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목회 및 선교 정보와 더불어 영적 충전의 특별한 시간이 됐다.

총 27편의 비행기로 세계 각국에서 사역자 100명과 평신도 50명 등 총 150명이 참석한 이번세미나는 2천년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귀중한 순례와 함께 이뤄졌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세미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한국등 9개국에서 참가했으며 미국내에서는 뉴욕과 LA 등 10개주에서 참석했다.



2면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으로 위기탈출!



3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평가해보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2013년 종교계 10대뉴스 종합 발표
본지가 선정한 2013년 한인교회 10대 뉴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1월 2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1월 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4년 1월 27일(월) - 29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뜻대를 향해 묵묵히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라는 일본작가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쓰키는 그의 수필에서 그런 성실한 사람은 일찍 죽고 자기처럼...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는 시점이다. 지난 한 해 우리교회를 돌아보니 밖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95세로 타계한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이었던 '마디바'...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으로 위기탈출!

리더십저널, 교회와 사회에서 '서번트 리더십' 강조

우리는 교회, 기업, 정부, 노동조합, 대학 등과 같은 거대한 제도적 기관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제도적 기관이 지배할 뿐 섬기려 하지 않는 이유, 리더가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심과 올바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되길 원하다가 나중에야 양심의 충동집이나 사회적 규범 때문에 마지못해 섬기는 체하는 지도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섬기는 지도자는 그래서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생각한다. 숭선 수범해 움직이지만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늘 조심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무엇보다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역한다.

에 얽은 착하고 영리하며 활기찬 사람일 수 있다. 그들이 지도자로서 섬기기를 포기하고 군림하는 태도를 가질 때, 또는 충분히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리에만 머물려고 할 때, 그들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적이 된다.

이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들, 전문가, 지식인, 연구에만 몰두하는 학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공동체를 좀 더 낮게 하기 위한 위험을 기꺼이 떠안으려는 사람이 필요하다.

(3면으로 계속)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은 양심... 신뢰관계 중요 자신의 꿈 개념화 비전 제시... 감정이입적 경청

(Servant) 이 사람들이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이다.

안타깝게도 현대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다. 지도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 뿐 아니라 이 사회 역시도 '종'과 '지도자'의 능력과 태도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 시대정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섬기는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처음에는 종이 나 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기에 마치 종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사회나 교회의 진정한 적은 사악하거나 어려서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

를 둔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3면으로 계속)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총격 사망

크리스천포스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슬람반군 폭력 보도

내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가는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경 번역 선교 단체인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와 동역하고 있는 ACATBA 선교회에 소속된 자마(Elisee Zama) 선교사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반군 단체 셀레카 요원들에 의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자 가족과 친척들을 자기(Bangui)에 있는 안전한 병원 구내로 옮기는 도중에 이슬람 반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레카 단체가 기독교인들이 결성 한 자경무장 단체가 주도한 반격을 모면한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약탈과 공격이 높아지고 있다.

셀레카는 특히 기독교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방기에서는 셀레카 무장 대원들이 훔친 오

도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한다. 이렇게 방기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폭력과 약탈 행위가 증가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셀레카의 공격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병원 구내나 공항으로 피신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Doctor of Ministr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수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평가해보라!

소그룹닷컴, 2013 건강한 소그룹 평가원칙 소개

평가는 매일 행해지는 일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물건, 그리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조직들을 평가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 무의식중에 하기도 한다. 즉각적인 감정에 따른 반응에서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숙고하는 것까지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개 우리의 평가는 즉각적이거나 그리 격식을 갖추지 않는다. 쉽게 평가하지만 또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격식없는 평가는 소그룹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격식 없는 평가에 의해 이뤄진 판단은 그룹에 꼭 필요한 결정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평가를 통해 최대의 유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세심하고 주의 깊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룹의 시작 시기는 좋았는가?

만약 출석부가 있다면 출석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룹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룹 구성원들이 모임에 지각한 횟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룹 구성원들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것을 즐기는가?

그룹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부차적 증거들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

그룹 구성원들 각자는 그룹 참여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면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인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결국 질적이고 효과적인 소그룹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평가는 목표를 달성

모임의 장소가 적합했는가?

구성원들 모두가 소그룹 모임장소를 제공했는지? 제공된 소그룹 모임장소가 소그룹 모임을 은혜롭게 이끌기에 적합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심하고 주의 깊은 평가 이뤄져야 유익 목표달성 · 필요한 변화에 유용한 도구돼

모임의 시간안배는 적절했는가?

소그룹 모임을 모임 때마다 전체적인 시간안배를 어떻게 했는지, 정해진 시간간격 속에서 소그룹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 그룹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중 당신이 우연히 듣게 된 것 혹은 정기적인 그룹 모임 이외에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만난 횟수 등도 정확하다면 유익하다.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로서 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그룹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부의 자료, 예를 들면 책이나 잡지 기사 등도 필요하다. 그중에서 효과적인 토의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로서 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그룹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부의 자료, 예를 들면 책이나 잡지 기사 등도 필요하다. 그중에서 효과적인 토의

하며 필요한 변화를 주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평가는 책임감을 길러준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으로 위기탈출!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십의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연구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즉, 리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리더(leader)와 팔로워

(follower)의 윤리가 리더십의 광범한 범위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공정성, 공동체의 확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으로

는, 첫째, 서번트 리더는 설득과 대화로 과업을 수행한다.

둘째, 서번트 리더는 자신을 서번트(하인 혹은 머슴) 또는 지원자(supporter)로 인식한다.

셋째, 서번트 리더는 조직원을 성장하도록 몰입하게 한다.

넷째, 서번트 리더는 항상 학습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 서번트 리더는 감정이입적 경쟁자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는 신뢰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곱째, 서번트 리더는 자신의 꿈을 개념화해 비전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권위, 즉 양심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다.

위클리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총격 사망

(2면에서 계속)

사망한 자마 선교사도 가족과 함께 2013년 12월 초에 피신을 가다 이슬람 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다행히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은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마 선교사가 속한 ACATBA 선교회는 성경서를 통해 최근의 폭력 사태로 인해 지난 두 달 동안 자마 선교사를 포함해 2명의 선교사를 잃었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발표했다. ACATBA 선교회는 방기에서 여전히 총격과 약탈 그리고 처형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적십자도 방기에서 3일 간의 전투 이후 4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UN)안전보장위원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질서를 회복하고 반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프랑스 군의 투입과 작전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 개정판 세계기독교정보(Operation World)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종교 비율을 기독교인 76.4%, 무슬림 13.8%라고 기록했다. 미국의 연구단체 퓨포럼(Pew Forum)도 2010년 실시한 종교 분



포 조사를 근거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89.5%, 무슬림 비율이 8.5%라고 발표했다.

투고 칼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고국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에서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거나 한 번뿐인 생명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심지어는 고국의 연예인들이 유명처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인 가운데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본다. 후지가 카우가 쓴 '나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라는 책은 누구보다 일찍 성공했지만 스스로 몰락해간 26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적인 클래식으로 아메리카 음악을 만들어낸 유명 음악가 '조지 거윈'은 오만과 자기중심성이었는데 교만하고 욕심과 탐심의 자기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말년에 고독하게 지내다가 피종양으로 비참하게 갔다.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젊은 나이에 동성애자가 되어 술과 쾌락으로 방황하다가 성병과 종양으로 고독한 삶을 마감했다. 그뿐인가 20세기 대문호였던 '헤밍웨이'(1899-1961)도 말년에는 무신론자가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권총 자살로 떠났다.

고국의 이혼율과 자살율은 세계 1위라고 한다.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30대 후반에서 이혼이 가장 높다고 했다. 이유 중에는 성격 차이가 46%, 그 다음에 경제문제, 가족 불화, 자기중심적 삶의 지향순인데 성격 차이에 연유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부정적 망상만 하고, 사람을 보면 자기 스스로 무시당하는 것으로 선입감을 갖고, 사물을 보아도 비관적인 착각 속에서 탈진과 함께 무력감과 허탈감이 사로잡혀 먹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싫고 생기를 잃고 입만 열면 '다 귀찮아' '다 싫어'를 달고 살게 된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병으로 알지만 육신의 병이기도 하다.

세계 유명인 중에 정치, 경제, 예술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추앙받던 '아인슈타인'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은 나 혼자만이 겪는 병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중요한 열등감을 버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이 필요하다. 밤도 잘 먹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도심의 거리도 활보해 보고 아는 사람들과 수도도 떨고 자기 스스로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프만은 운동은 우울증을 막아주는 이상적인 수단이며 정기적인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삶의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스위스 철학자 '힐티'는 인간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과 노력, 지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 했지만 결국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깨달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행복론자'가 되어 77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감사와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성경에 엘리야는 한때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고 탄식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복한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울증은 가시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것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살전5:16-18, 잠25:28).

Better World, Better Life, Better You!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목회학 박사

신학과 목회현장을 잇는 목회자 최고 전문학위과정

겨울학기 목회학 박사 (D.Min) 집중 과정 학생모집

목회학 박사과정은 기존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최고의 전문학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목회 및 사역을 위한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의 실지적 모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 및 사역에 필수적인 "Efficient/ Effective Practical Leadership" 과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복음제시를 위해 "Dynamic/ Biblical/ Christ-centered Preaching" 을 핵심과정으로 제공합니다.

강의 일정 2014년 1월 20일(월)~24일(금) / 1월 27일(월)~31일(금)

Course	Professor	Schedule
사차원의 영적세계	Dr. Hyeon Sung Bae	Jan 20(M)~24(F)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Dr. Peter Kang	Jan 27(M)~31(F)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M.Div) 소유자로서 3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하여 목회학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유아교육학과

복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개강 겨울학기 1/2, 봄학기 2/24, 여름학기 7/22, 가을학기 8/25

인턴십 및 취업 지원 교수 및 원장 자격증과정을 마치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사 및 원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원장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이나 사역자를 원하는 교회에 연결해드립니다.**

베데스다 대학교에는 유아교육 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과 함께 4년제 학사학위(B.A.) 과정이 있습니다. 탄탄한 이론과 풍부한 현장 경험도 강조하지만, 유아들을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 유아교육 사역자를 배출합니다.

특전/교수진

- 특전: 유아교육 학사과정으로 편입할 경우 자격증 과정 학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유자격자는 연방 학비 보조 가능합니다.
- 교수진: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합니다.

모집학과

- 신학학부
- 음악학부
- 유아교육학과
- 경영학과
- IT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ESL Program
- 대학스포츠팀

Toll Free 1.800.960.4583 Fax: 1.800.960.4584 admission@buc.edu

미국 연방정부로 부터 Financial Aid 보조가능합니다 (전액도 가능)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1-20 발행합니다 www.buc.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용기

나는 지금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자리에 서있다. 피렌체의 신요레(Piazza della Signore) 광장. 지금으로부터 545년 전에 용기 있는 한 사람 사보나롤라(Savonarola 1452-1498)가 피를 토하듯 외치다 화형을 당한 장소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설교 할 때 피렌체 시민

의 반 수 가까운 사람들이 열광했다. 보통 3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를 하였는가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그와 같은 용기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하고 싶은 말, 행동하

고 싶은 몸짓, 포효, 등등 가슴 가득 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 지금도 후에도 언제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의 부조리와 속임과 협잡, 이런 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이라.

가끔 역사물을 보면서 고개가 갸웃 거리는 경우가 있다. 당파싸움에 몰려 역적이 되고 사약을 받아야 하는 장면이다. 이 모든 것은 임금의 잘못된 정치 때문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죽어가면서도 존중을 표한다는 점이다. 극에서 보면 돛자리를 깔고 조그마한 상이 놓이면 그 위에 사약이 올라온다. 그러면 역적으로 몰린 신하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한 다음 사약을 마시고 죽는다. 극이기 때문에 미화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죽는 사람이 성인처럼 죽어간다는 사실이 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역

적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이성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상황을 맞은 신하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적어도 마지막 순간은 왕을 향해 임금노릇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자질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외침을 통하여 적어도 왕이 고만하고 자신의 정치형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자신은 사약을 받고 아내는 관기가 되고 자녀들은 다른 신하의 종이 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잘못 때문에 조선 역사는 변화를 몰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보나롤라를 화형 당한 장소를 표시해 두었다. 그 뜨거운 화염이 사보나롤라를 휘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환호하고 탄성을 발했던 군중들이었는데 오늘은 야수처럼 변하고 말았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군중의 모습이다. 그의 피를 토하는 설교는 교황을 전율케 했다. 그는 자식을 다섯 명이나 두었으니 사보나롤라의 회개를 외치는 날카로운 회개의 설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를 회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동원했던 교황,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추기경을 하사하겠다는 제의에 나는 빨간 모자 보다 주님의 빨간 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소리를 높였던 그가 오늘 그리워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놀라운 용기, 그 용기는 사라지지 않고 반세기 후에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쫓는 길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그는 1468년 5월23일에 두 동료와 함께 화형을 당했다. 그가 화형

을 당하기 직전 주교는 그의 수사 옷을 벗기며 선언했다. 나는 그대를 전두적 교회(지상교회)와 승리적 교회(천상교회)로부터 분리하노라! 그때 사보나롤라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두적 교회를 떠나지만 승리적 교회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를 태운 뜨거운 불이 꺼지자 그를 공격한 사람들은 그의 뼈를 추려 피렌체 시를 관통하는 아르노 강에 던져 버렸다. 다시는 아름다운 피렌체를 요동케 하지 말라는 듯이-

사보나롤라가 화형 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있다. 사람은 한 점에서 태어나고 한 점에서 세상을 떠난다. 용기 있는 그가 마흔 여섯 살에 정의를 외치다 떠난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침묵하고 있다. 또 다른 용기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푸 / 른 / 초 / 장

이규본 목사
(주비전교회)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왕이 충성스런 신하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금, 은, 보석을 또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신하는 근심스럽게 "왕이여 이렇게 모두 나누어 주면 대왕의 뿔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니 알렉산더 왕은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소. 바로 희망이요. 이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 모두를 소유하게 해주었소"라고 말하자 신하들은 다시 한 번 왕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예수님은 작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헨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

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5:2)고 하였습니다.

2.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

다. 예수님은 작은 나라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낮고 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병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세밀 하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는 들에 나가서 새끼를 혼자 낳고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스스로 사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돌이 지나면 자립하나?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을 나와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

다. 예수님은 작은 나라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낮고 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병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세밀 하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는 들에 나가서 새끼를 혼자 낳고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스스로 사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돌이 지나면 자립하나?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을 나와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

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7)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계17:14)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그림도 그리신 적이 없으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과 같은 세계적인 화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문장의 글도 남기지 않았으나 단테, 밀턴과 같은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곡도 작곡하신 적이 없으나 베토벤, 모차르트, 멘델스존, 헨델과 같은 음악가들이 일생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3.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샤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는 분명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자녀들은 모르거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샤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

구유에 나신 예수 (눅2:1-7)

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5:2)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고 좁고 냄새나고 무관심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

고 죽어서는 남의 무덤을 빌려 3일간 머물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죠? 낮은 자를 구원하시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

다. 인간은 사랑을 받도록 되어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집을 나갈 때에 도 못된 아들이었고 나가서도 못

다. 인간은 사랑을 받도록 되어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집을 나갈 때에 도 못된 아들이었고 나가서도 못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 1266 상황 중간 업데이트 & SB 323

오늘은 그동안 궁금해 하셨을 AB1266에 대한 중간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결과는 아니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2개 카운티에서는 박스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지만 나머지 카운티들은 이제 전체적인 카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두 군데의 카운티들이 그다지 큰 카운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서명들이 그 두 군데의 카운티에서 나왔는지는 알

매우 까다롭고 통과되기까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정도로 정치적 싸움이 뒤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스트레스가 쌓이는 서명운동과 카운트 하는 과정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걷는 이유는 나쁜 법안이 시민들 뒤에서 몰래 통과될 때, 그 법안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시민투표이며 시민투표는 referendum을 통해서 할 때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통

이 정말로 많아만 샘플 카운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샘플서명들을 카운트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첫 30일안에 무작위로 뽑아서 검토한 서명들의 유효숫자가 만일 110% 이상 유효하게 나왔다면, 그때는 더 이상 서명들을 카운트 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승리로 국민투표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금 AB1266은 첫 단계인 30일 과정 안에 들어가 있으며 샘플

이번에 AB1266을 위해 헌금 해주신 분들의 헌금이 서명운동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600만 명이 넘는 큰 서명운동은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 뛰어도 거의 감당하기 힘든 숫자인데, 이번엔 들어온 후원금으로 인해 유급 스태프들을 고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SB323 - 계속 여러분의 바대의견들을 알려주세요!
SB323 이 현재 inactive file

referendum 서명운동 성공하면 시민 직접투표 가능 샘플서명 유효성 가늠하는 마감일은 내년 1월8일

수 없지만, 우선은 큰 카운티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끝까지 못 찾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숫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지만.....그래도 서명이 하나만 모자라도 실패하는 것이기에 저희 Privacy for All Students의 크리스천 팀들은 두 카운티에 해당하는 박스를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 사는 분들이 시민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이런 referendum 서명운동이 끝난 후 서명들은 어떻게 카운트될까요?

이런 referendum을 하는 목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원들과 주지사 또는 법정에 의해 그냥 통과된 나쁜 법안들을 폐지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 움직이는 서명운동입니다. 이 referendum 서명운동이 잘되면,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법안을 폐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Referendum을 시작하는 과정이나 서명을 받는 과정들이

해서 일어난 referendum 서명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각 카운티로 나눠진 후(캘리포니아는 58개의 카운티), 제일 먼저 거치는 단계는 전체 서명들을 다 세어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샘플 카운트"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샘플 카운트(sample count) 과정이란?

첫 단계로, 각 카운티에서는 첫 30일 동안 무작위(randomly)로 서명한 용지들을 뽑아서 거기에 적힌 서명들을 검토하며 서명들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가려냅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검토한 서명들 중에서 만일 샘플로 뽑아 검토한 서명들의 95%가 유효한 서명들이었다면, 또 다른 30일을 걸러서 나머지 세지 않은 서명들까지 완전히 다 카운트를 하여 총 결과가 몇 퍼센트인지를 가려냄으로 통과 또는 실패를 가려내고, 국민투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됩니다. 95%란 거의 100%에 가까움으로 사실상 유효한 서명

플카운트를 무작위로 계속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너무 늦어지고 있는 두 카운티에 있어서는 박스를 찾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비쳤기 때문에 카운티에서는 서명한 것들을 나중에 박스를 찾은 후에 카운트를 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주가 그 숫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효화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캘리포니아주와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려운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감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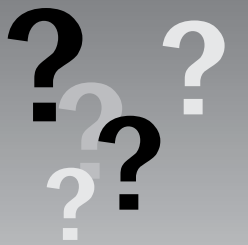
참고로, 샘플 서명의 유효/무효 성을 가늠하는 마감일은 1월 8일입니다. 따라서 1월 8일 이후 첫 과정의 통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에 들어가 있지만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 이미 통과되고 난 후에 반대폐지운동을 하려면 너무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법안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스태터스(status)와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고, 편지, 이메일, 팩스를 사용해 훨씬 쉽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SB323이 inactive file에 들어가 있지만 SB323이 법안화되지 못하도록 미리 미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더 큰 안 좋은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NEXT.org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의원들의 연락처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의 연락처도 올려놓았으니, 혹시 영어가 힘든 분들은 저희가 만든 영문편지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그들에게 보낼 수 있으니 이메일, 편지, 팩스 등을 골고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베들레헴을 다윗 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지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거 오셨을 때의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촌 동네요 비천한 목축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약 6-7마일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오는 사람들, 불 일 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목에서 먹을 것을 팔아 근근이 먹고 사는 가난한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므로 무명의 마을이 아주 유명한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6-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 메시야 탄생지로 이미 예언되었던 장소입니다(미5:2).

베들레헴은 미가의 말대로 아주 작은 소읍이었으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촌동네였으나 그리스도 탄생함으로써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동네가 되었고 세계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여하는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의 가치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맹물같은 인간도 극상품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꺾박자인 사울에게 우리주님이 찾아 오시자 꺾박자요 종교 강패였던 사람이 대 사도 바울로 초대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시자 두 배에 가득 찬 만선의 풍요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리와 살인강도도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죄인도 의인으로 바뀝니다. 요강단지 같은 인간도 금 그릇 같은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분이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와 민족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해적이었다던 영국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야만족이었다던 게르만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자 헨델, 슈베르트,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등 새로운 음악의 거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그 장소는 베들레헴 구유였습니다. 그 흔한 여관 방 한칸 얻지 못해 짐승의 뉘새나 비천한 장소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 태어나셨더라면 어떻게 비천한 양이나 치는 목자들이 감히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궁구에서부터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누워 계심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겸손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구원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하는데 높은 자리에는 주님이 안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임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플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에 한함
 - 3) 이중언어할 수 있는 분
- 구비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증명서
 - 3) 학력 증명서
 - 4) 설교 CD 2개
 - 5) 목사님 추천서 (2인)
- 제출마감 **2014년 1월 31일**
- 제 출 처
 - 1)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2) E mail: yspcpastor@gmail.com
- 문 의 김인광목사 (215-385-6086)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걸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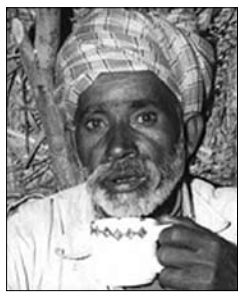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구잘리(GUJALI)



파키스탄은 지형, 기후, 언어, 종교, 인종적인 면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지닌 나라다. 인구는 약 1억 4천5십만이며 90여개의 독특한 종족 집단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주요 종족으로는 펀잡족, 신드족, 파탄족과 우르두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은 오랜 파키스탄 역사

동안의 많은 침입이 되풀이된 결과이다. 이들은 드라비디안(Dravidian), 인도-아리아인, 그리스인, 스키타인(Scythian), 훈족(Hun), 아랍인, 몽골인, 페르시아인과 아프리카인과 같은 종족출신이다.

파키스탄의 도처에 흩어져서 큰 종족들 간에 섞인 작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구 9,500명의 구잘리인(Gujali)들이다. 이들은 이 나라의 북동쪽에 거주하며 부루샤인들(Burusha)과 이웃 사이이다. 이들은 와키어(Wakhi)라고 불리는 인도-아리아인 계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구잘리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삶의 모습

파키스탄 땅의 약 26%는 경작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관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절반이 넘는 노동력이 농업 혹은 그에 관계된 활동에 투입되고 있고, 65% 이상의 사람들이 시골지역에 살고 있다. 생산 증대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없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생산량은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혁과 누진세 제도가 도입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관개기술과 비료의 개선으로 밀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돼 파키스탄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가 됐지만 때로는 주요산물이 부족되기도 한다. 밀이 주요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널리 재배된다. 목화와 쌀은 주요 수출작물이다. 가축들은 많지만 육류와 우유생산은 저조한데 이는 부적절한 사료공급과 저질의 관리 때문이다. 염소와 양은 가장 일반적인 가축이고 소, 물소, 낙타도 사육한다.

가족의 구성은 가부장중심제(patriarchal)이고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생활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며 가정의 잡일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한된다. 부유한 소작농이나 지주의 가정, 도시 중산층의 가족들은 여성들을 격리(푸다, "purdah":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해 보호한다. 만일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푸다의 관습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집앞쪽에 남성들의 구획("mardana")이 있다.

가난한 이들은 대개 여성들도 농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푸다의 관습을 행하지 못한다.

사회구조는 카스트보다는 혈연 중심적이다. 베라다리("Beradari":남성을 통해 족보가 이어지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다. 남자들은 아버지 형제들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집단에서 결혼은 변함없이 늘 베라다리 안에서 이뤄진다. 한 혈통의 원로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평의회를 구성하며 바깥사회에서 그 혈통을 대표한다.

신앙

파키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으로 인구의 약 97%를 차지한다. 힌두교와 기독교는 그 다음 소수 종교집단이다. 구잘리인들은 다수파에 속해서 100% 무슬림이다.

파키스탄의 헌법은 그 나라를 이슬람국가로 정의하여 놓았으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다.

필요한 것들

성인 파키스탄인 중 오직 35%만이 읽고 쓸 줄 안다. 제도상으로는 5년간의 무료 초등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절반이 못되는 어린 이만만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 정부는 여성고용촉진과 가족계획을 통해 출생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구잘리인들에게는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자료가 없으며 이들을 목표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반동성에 파동 확산...

미국의 대표 TV 리얼리티 '덕 다이너스티'(Duck Dynasty)에서 벗어난 이성애자 역할이 공화당의 대권지형을 흔들고 있다. '덕 다이너스티'의 주연인 필 로버트슨(67)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이유로 강제 하차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들 틈 타 '관망자'들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크 허커비(58) 전 아칸소 주지사는 22일 폭스 뉴스에 출연, 2016년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약 50대50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침례교 목사인 허커비 전 주지사는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대권 쏜망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 첫 지역경선에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으나 조만 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정치 평론가로 변신한 그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서지 않아 정계복귀 의사를 완전히 접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대권 재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허커비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덕 다이너스티' 현상에 편승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허커비 자신도 "전투적인 (진보) 운동가 그룹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왕따행위"라며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보고 로버트슨에게 중징계를 내린 방송사(A&E네트워크)의 조치를 비난했다.

A&E는 로버트슨이 남성 편성잡지인 지큐(GQ) 신년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기독교 신앙을 강조해 논란이 일자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기독교와 보수진영, 공화당은 로버트슨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A&E 시청 거부 운동을 펼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체인지'(change.org) 등의 인터넷 청원사이트에는 이날 현재까지 약 50만명이 서명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덕 다이너스티'가 로버트슨 가족의 출

연 거부로 폐지되면 A&E의 전체 시청률이 1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현지에서 제작되고 있는 '덕 다이너스티'가 A&E에서 퇴출되더라도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끈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보비 진달이 주지사로서 있는 곳으로, 그는 연일 로버트슨 징계에 비판을 쏟아내며 진정된 보수의 대변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닉 부이치치, 2013년 4억명에 복음

팔과 다리가 없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30)가 올해 전도 여행을 통해 전세계 4억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미국 기독교매체 가스펠 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국 장애인 비영리단체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인 부이치치는 "2013년 아웃리치(선교적 봉사활동) 결과 보고에서 헝가리와 일본, 베트남, 홍콩, 예카도르 등 24개국을 돌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희망을 전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집회를 통해 40만 명을 만났다. 베트남 호찌민의 집회에는 올해 집회 참석 인원 중 가장 많은 3만 5000명이 모였다. 또 그의 메시지는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수억 명에게 전해졌다.

부이치치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이달 초 대만의 항구도시 가오슝 집회에 모인 3만 명 중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또 그의 안수기도는 매년 감동을 줬다. 손이 없는 부이치치는 사람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게 한 뒤 기도했다. 헝가리 대통령 내외는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을 만나 기도하며 위로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역경 스토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남수단 주민 3만4천명, 유엔기지로 대피

유엔은 남수단 유혈 사태로 지역 주민 3만4천명이 현지 주둔 유엔 기지 3곳에 대피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날 남수단 수도 주바에 있는 유엔 기지 2곳에 2만여명, 종글 레이주 주도 보르의 유엔 기지 1곳에 1만4천여명이 각각 대피해 있다고 전했다.



또 남수단 원유지대인 우니티주의 주도 벤티우 등에도 수백명이 피신해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남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긴급 수송용 비행기를 보냈으며 독일에서 출발한 비행기도 남수단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수단 유혈 사태는 지난 15일 주바에 있는 대통령 경호대원 간 충돌에서 촉발됐다. 단카족과 누에르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충돌은 남수단 전역으로 종족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미, 내년 10대 안보위협에 북한 포함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내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글로벌 핵심 안보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도발과 체제 불안정을 꼽았다. 미국 외교협회(CFR) 산하 방지 행동센터(CPA)는 19일 발간한 '2014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4) 보고서에서 내년 최우선으로 억지해야 할 10대 글로벌 현안을 열거했다.



CFR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1천200여명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학자 등을 상대로 향후 12개월간 새로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위기나 분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올해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1등급'(Tier 1) 위협으로는 북한 위기를 비롯해 시리아 내전 악화, 아프가니스탄 폭력사태 확대 및 불안정, 요르단 정정 불안 가중, 미국 본토나 동맹에 대한 테러공격, 미국내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對) 이란 군사공격 위협, 파키스탄 정정 불안, 이라크 내전,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의 세력 확장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군사도발, 내부 정정불안,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위협 등으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북한발(發) 위협이 상위에 랭크된 것은 지난 2월 핵실험을 감행한데다 핵무기 5개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내부 정치적 불안도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번 조사 이후 김정일의 고모부이자 2인이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것도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북한 위기와 함께 시리아 내전과 사이버공격, 대 이란 군사공격,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테러 등이 같은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아프간 사태 등 5개는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충격은 비교적 약한 위기로 분류됐다.

LA박물관 '신의 피조물' 안내문 제거

관광객의 발걸음이 잦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문구가 든 안내문을 떼어냈다. 17일 지역 라디오 방송 KPCC에 따르면 자연사 박물관은 최근 문을 연 새 전시관 입구에 내걸었던 안내문을 제거했다. 안내문은 "이 전시관은 모든 '신의 피조물'을 축하하고 자연사 박물관이 과학적 발견을 통해 자연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로스앤젤레스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내문은 새 전시관을 마련하는데 거액을 쾌척한 역명의 기부자가 쓴 것이다. 이 안내문을 제거한 이유는 '신의 피조물'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과학이 배척하고 있는 '모든 생물은 신이 창조했다'는 명제를 자연사 박물관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문을 연 이 전시관에는 살아 있는 동물과 각종 생물 관련 연구 과정과 성과 등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시설이 들어 있다.

이에 앞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생물학자인 시카고대 제리 코인 교수는 블로그에 이 안내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코인 교수는 "왜 진화가 진실인가"라는 주제 아래 연재하는 블로그에서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은 동물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공인함으로써 대중을 그릇된 지식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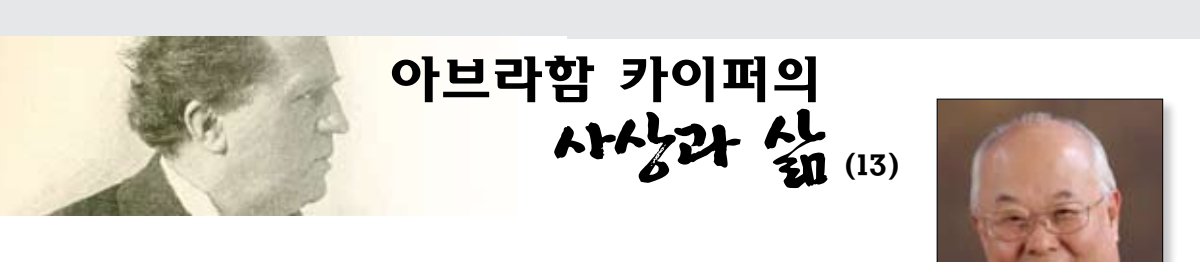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3)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교회의 개혁자 카이퍼

1920년 11월12일, 카이퍼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비문은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험스켈크(Mr. Th. Heemskerck)가 썼는데, 그 비문에는 '말씀의 종, 교회의 개혁자'(Bedienaar des woords, Kerk Reformator)란 말이 유독 강조되었다. 카이퍼는 위대한 정치가로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수상, 당 총재를 지냈고 대학의 설립자요 불굴의 저널리스트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칼빈의 사상을 본받아 칼빈주의 세계관을 관철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목사로 설교자로서 화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랐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교회는 복음에서 한참 멀어졌고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의 혼신의 힘을 쏟아 자유주의자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평생 투쟁했다. 말하자면 그의 생애는 교회의 개혁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 생애는 어쩌면 그의 사상의 멘토인 칼빈과 비교할 수 있다.

16세기 요한 칼빈(John Calvin)

은 종교개혁자 즉 교회의 개혁자이다. 칼빈이 교회개혁을 한 것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나 이질한, 말하자면 세상의 이방종교와 교황제도를 섞어서 이른바 유사종교가 되었기에 개혁이 필요했다.

“불신앙이 넓게 퍼져서 종교의 교훈이 대부분 혼합되어 순수하지 않으며, 의식은 오류투성인데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미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장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덕은 아주 잊어진

화란 국가교회의 세속화
아브라함 카이퍼와 반혁명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개혁을 추진해가는 동안 화란 국가교회의 영적상태는 형편이 없었다. 일찍이 영적 부흥운동 즉 레베이(Rev'ei)운동이 있기는 했으나 몇몇 소수에 불과했다. 화란국가 사람들은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에 둔감할 뿐 아니라 온통 세속주의에 몰두하였다. 이른바 흐로닝겐 신학의 도전으로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은 기를 펴지 못했고 자유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있었다. 화란국가 전체적으로 현대주의(Modernism)가 퍼져갔다. 흐로닝겐 대학의 학자들은 신인(神人)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냥 신적 성격을 가진 사람 정도로만 이해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성을 거부해버렸다. 그렇게

Union)를 조직했다. 카이퍼가 우트레흐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기간에(1867-1870) 그는 이 조직의 회장이 되었고, 암스텔담교회로 목회지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어 갔다. 말하자면 카이퍼는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싸우며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었다.

카이퍼는 확신하기를 현대주의 사상은 참된 기독교의 적수이며, 칼빈주의사상만이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상 체계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믿는 것은 바로 칼빈주의기 때문이었다. 한편 현대주의는 인간 스스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며,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판단했다. 말하자면 현대주의는 불란서혁명 사상에 기초한 반 기독교

결되어 기존의 가치기준이 허물어지고 반 기독교적인 자유주의로 전락했고,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칼빈주의 사상은 인간간의 전적부패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다. 이런 사상은 삶의 전 영역에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자유주의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은 그가 일찍이 베이스트(Beesd)교회에서 개혁주의신앙의 사람들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또한 칼빈의 사상에 심취되어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했다. 그보다는 그 자신이 라이덴대학에서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자유주의자들과의 전투에서 맞서서서 전면에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말하기를 “나는 한때 내 스스로 현대주의자였습니다. 나는 현대주의의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현대주의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최전방에 서게 되었다. 카이퍼가 우트레흐트교회에 재임하고 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교회는 개혁주의적이며 민주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이는 교리로 잘 조직되고 공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교육이 잘 실시되며 사람의 목욕이 성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이퍼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성장해갈 것을 주문했다. 카이퍼는 또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대로 개혁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메일: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자유주의사상 교회전승만 주장하는 화란국가교회 개혁에 앞장 '고백적 연합회' 회장으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 선봉장 노릇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교회의 전통(Tradition)을 귀히 여겼던 교회는 개혁되어야 했다.

본래 개혁(Reformation)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을 의미한다. 결국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기에 본래 성경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다. 그러면 칼빈이 1539년 추기경 사들렛토에게 보낸 답신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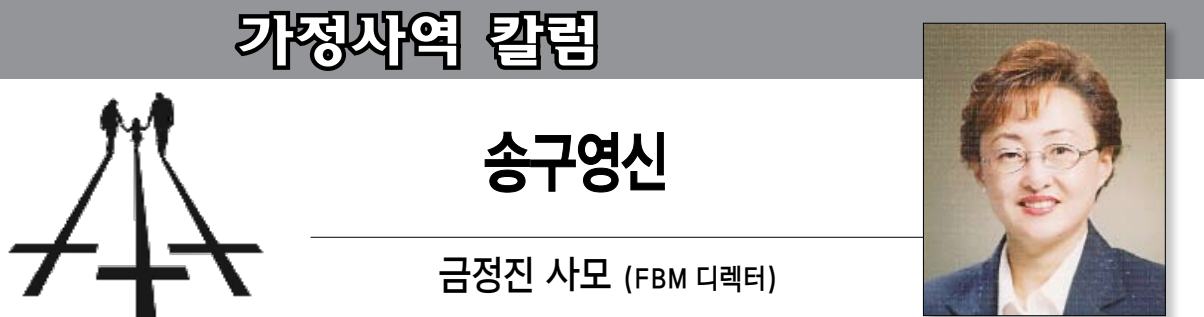
체 버렸으며 목사의 직무는 파괴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와 같이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도 당시 국가교회를 볼 때 교회개혁의 의지가 그의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의 칼빈이 그러했던 것처럼 19세기의 카이퍼도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더럽혀진 교회를 향해 교회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교회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사명이며 소명이기도 했다.

되니 화란국가교회도 같은 신앙노선을 걷게 되었다. 자유주의 입장을 가진 지식인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했고 칼빈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자유주의자들에 힘에 눌리고 가려졌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현대주의 사상과 대결하는 전투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1865년에 화란국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현대주의사상에 반기를 든 지도자들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려고 '고백적 연합회'(Confessional

교적 사상인데다 무신론적 세계관(Godless World-View)이다.

이런 현대주의의 폐해는 엄청난데, 카이퍼는 이런 현대주의사상의 배후에는 독일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Frederich Nietzsche, 1844-1900)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허무주의(Nihilism) 사상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게 되었다. 더구나 다윈(C. Darwin)의 진화론 사상이 부흥되면서 현대주의사상과 연



가정사역 칼럼

송구영신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한해를 돌아보면 작년에 실천하고자 세웠던 계획들을 이룬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12월은 한해를 돌아보며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노력했던 영역에는 재정, 학업, 신앙 등 여러 가지가 있었겠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증진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친밀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친밀감을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들: 첫 번째로 친밀감을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게 되면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주시겠다”(마18:19)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친밀감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결혼에서의 진정한 친밀감은 육체적 친밀감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격식이 없이 깊고

개인적인 다양한 활동 속에서 가까워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적, 오락적, 영적, 정서적, 성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친밀감은 사랑이상의 것으로 두 사람 간에 신뢰, 충성, 우정, 대화, 나눔을 통해 만들어지며 남성들은 성행위를 통한 육체적 친밀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여성들은 성관계가 친밀감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면 반드시 자기 자신과 가까이 친밀해지려고 해야 한다. 친밀해지거나 가까워지려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

와 미래에 대한 압박관념이나 해결되지 않은 분노, 적개심, 수치심 등은 친밀감을 갖는데 커다란 방해요소가 된다.

30년 넘게 커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고트만(John Gottman)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루기 위한 일곱 가지 원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첫째, 당신의 애정관계도(love map)의 수준을 강화하라. 예를 들어 일어나 자러, 재정 등에 대해 대화하기보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 서로의 목표, 서로의 꿈 등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도록 하라. 둘째, 좋아한다는 말과 칭찬으로 상대방을 격려하라. 셋째, 멀어지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가까이 하도록 하라(정서적, 낭만적 은행계좌에 저축하도록 하라). 넷째 파트너가 당신에게 주는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라. 다섯째,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여섯째, “도로정체” 상태(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비

유한 말)를 극복하라. 일곱째, 더불어 내면적인 영적 삶을 나누고 서로 결속됨으로써 공유된 의미를 창조하라 등이다.

친밀함은 이처럼 영적, 지적, 정서적, 육체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풍성한 관계를 가지려면 각 차원에서의 친밀감을 포함한다. 그것이 바른 순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육체적 친밀감에 따라서 결혼생활에 들어가며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그러나 결혼은 육체적인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임을 곧 알게 된다.

영적 친밀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가깝게 연합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대개 이것은 일반적인 결혼관계에서 가장 부족한 차원의 친밀감이다. 주님과 그의 관계를 깊게 하며, 안전감이나 자기가치감, 중요감과 같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있어

서 배우자보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이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울러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관계를 갖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힘들었던 일이나 좋았던 일을 나누고 함께 위로나 기쁨을 나누도록 노력할 때,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뿌리를 공유하는 쌍둥이 나무뿌리처럼 하나가 되게 된다. 아울러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화훈련이나 분노조절훈련 등 세미나와 경청기술훈련 공감훈련을 통해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생명의 숲

이문재 지음 / 320면 / 14,000원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한신교회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으로 잘 알려진 비유 설교집

인생의 궤도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짐 나간 탕자를 설교할 땐 자연스레 나 자신과 오버랩 되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자라는 생각이 몸 둘 바를 몰랐으며, 집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 사는 첫째 아들이처럼 이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는 배운명역한 위선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목사

은쟁반 위의 금사과

Golden Apple on the Silver Tray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달력, 교회력

교회력과 절기에 맞추어 편집된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춰 선포된 말씀으로서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지도록 고인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 책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회복되고, 위대한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성훈 지음 / 272면 / 11,000원
390면 / 13,000원

이문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변화	344면 / 12,000원
생명의 초성	272면 / 10,000원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70. 창조론의 기초(20) - 최근에 창조된 우주

빅뱅은 사실이다. 빅뱅은 증명되었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원자보다도 작은 한 점에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무수한 이온화되는 모리지만 138억 년 전에 대폭발(빅뱅)을 하였고, 원자가 형성되고, 분자가 형성되고, 별이 만들어지고, 46억년 전에는 태양과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서 또 작은 분자들이 뭉쳐 큰 분자들이 되고, 세포 성분들이 우연

“처음 상태”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그 과정이 시작될 때 거기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최대 혹은 최소 한계를 어림잡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 바닷물의 소금 농도를 몰라도 최소 0%보다는 높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바다로 유입되는 소금의 양을 측정하면 바다가 최대 몇 년 전부터 존재했었을 지 어림잡아볼 수는 있는데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있는데 마치 세차기 중심을 따라 흐르는 물결처럼 중심으로 휘감기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 흐름을 나선 은하의 팔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나선 은하의 중심은 바깥 쪽 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으므로 나선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더 빠르게 감기게 된다. 그 회전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나선 구조는 1억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지만 10억년이 지나면 몇 번의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은하 팔들은 다 감겨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나선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우주가 빅뱅의 주장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세상 천문학자들은 나선 은하가 10억년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은하의 팔들이 없어지더라도 또 다시 만들어진다의 관찰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물리학에 의하면 나선 팔과 평행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플라스마(이온화된 가스)가 흐르고 있으므로 새로운 나선 팔이 만들어진다면 그 팔은 원래의 나선 팔과

다. 그렇다면 우주 초기에는 은하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 최근 과학자들은 더 좋은 망원경으로 더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을 발견해가고 있다. 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빛을 보는 것은 그 은하에서 100만년전에 출발한 빛을 비로소 보는 것이고, 3억광년 떨어진 은하를 발견했다는 것은 3억년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그만큼 더 먼저 형성된 은하인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은하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107억광년 거리에 있는 나선은하 BX442를 발견했는데 우주 진화 이론에 의하면 107억년전에는 은하가 형성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각양 거리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나선 은하들은 우주의 나이가 오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오리온자리의 세 청색 별 대부분의 별들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내고 있다. 태양 같은 별은 100억년 동안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측정에 필요한 “처음상태” 알 수 없고 현재 변화속도만 측정 나선 은하(먼 곳 포함), 오리온자리 청색별 등은 젊은 우주 증거

히 만들어지고 조립되어 38억년 전에 처음 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세포가 계속 진화하여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다 믿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앞에 기술한 내용 중에 ‘인슐린은 혈당을 내린다’라는 주장처럼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질량을 측정하거나 물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과 달리 시간은 과학자들이 측정하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실험실에서 탐지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시간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거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고 추측을 할 따름이다. 이때 “처음 상태”와 “변화의 속도”를 알 경우에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변화의 속도 뿐”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과거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는지, 처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진화론자들은 바다가 30억년 동안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염도를 보면 아무리 길어도 30억년의 70분의1 수준인 4200만년 이상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예측해볼 수 있다.

나선 은하들의 존재
나선 모양의 은하들은 수천억

년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관찰된 사실과 상반되는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나선은하의 존재 빅뱅에 의하면 우주는 138억년전에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면서 소립자, 양성자, 원자 등이 차례로 형성되어 별이 되었고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었다고 믿는

청색 별들은 다르다. 이 별들은 모두 태양보다 더 커서 더 많은 수소를 가지고 있지만 태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료를 태우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보다 20만 배나 더 밝아 청색으로 보인다. 이런 속도로 연료를 태우면 그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없다. 어떤 청색별은 겨우 100만년 지속될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주가 138억년 되었다면 청색별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오리온자리의 세 별들은 모두 다 청색 별들이다. 이 청색 별들은 우주 진화론에 비해 훨씬 젊은 우주를 말해주고 있다.

성경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는가?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 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시므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사40:26).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할머니 육아가 가져다주는 긍정효과-(1) 할머니들이 천사다

몇 해 전 일본의 영아 교육시스템을 집중 연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와 함께 모 방송국 사장님과 방송을 찍는 PD 한분과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가정의 위기가 되어가는 저 출신의 문제와 영아 교육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국 측에서의 요청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지요.

그 당시 필자도 '0-3세 교육 평생 간다'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고 0-3세를 위한 교재를 연구하여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있던 터라 흔쾌히 '동경'행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취재하면서 육아에 대한 위기감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터졌는데 일본의 복잡한 기차역 사물함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은 젊은 여성이 신생아 요람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기차역 사물함에 넣고 문을 잠가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나중에 죽은 아기를 기차역 사물함에서 발견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이 젊은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그렇게 한 이유가 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부담감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 기차역을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자 국가적으로 '엔젤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역마다 출산과 양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할머니들과 젊은 임신부들을 연결시켜주어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엔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지역 할머니들이 함께 도와가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녀 양육경험을 갖고 있는 노련한 할머니들의 도움이 갖 결혼한 엄마들에게는 '엔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할머니들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잘 배려한다면 진짜 '천사'가 되는 것이지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할머니 양육이 천사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양육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이 '엔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준비한 필수 교육을 마쳐야 하듯이 우리도 서로 할머니와 엄마의 갈등을 중립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잘 준비해야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명명하여 생기게 하였다”(사45:12).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은 바로 창조 4일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6천여 년 전에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진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14-15). 천체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지구에 빛을 비추어 진조와 일자와 계절과 한 해

로 구성된 시간 체계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천체의 창조 목적 중 하나는 진조 (sign)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 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 빛이었다. 빅뱅 같은 우주 진화론에 벗어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8:3).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미주판 2014년 다이어리 2014 DIARY

up to 50% 세일

FREE!

<20개 이상 단체 주문시>
다이어리에 인쇄해 드립니다.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영문판>
(특대)

일반영문판

연말연시 특별세일

기간 2013년 11월 ~ 12월 말까지

Sale 1. 호산나 서점 점포정리 - 전품목 up to \$2.00

(호산나 서점이 경기 불황 침체로 점포 정리함. 기독교서적센터에서 전품목 인수하여 현 가격과 상관없이 개당 up to \$2.00씩 판매함) 주석류, 일반 신앙서적류 일체/찬송, 찬양류/듣는 성경, CD/DVD 일체, 말씀성구, 성화 액자류 / 성구로된 컵종류

Sale 2. "기독교서적 센터에서는 전품목 up to 50% 세일"

큰글자 성경류, 한영성경류, 신앙서적류/각종 말씀성구, 성화액자, 말씀 자수로 된 태월류 성구로 된 컵 종류/수천종류 말씀 선물류 등

Sale 3. "기독교서적센터에서는 강대상류 up to 30% 세일"

* 크리스탈 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분대, 강단의자, 현금함, 현금보조대, 십자가 기타
* 나무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분대, 강단의자, 현금함(대/중/소), 십자가(특대/대/중/소) 분당 장의자, 분당 개혁의자 기타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TEL. (323)737-7699, (323)737-4526 /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 인터넷 쇼핑몰: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2014년 *올해내게주신말씀 책갈피*는 고급피 메듭으로 만들어짐. 한글, 한영으로 전면디자인 20가지, 성구 500구절로 만들어짐. *12월10일까지 주문시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인쇄해 드립니다.

인생의 1/3을 잠(수면)으로 보냅니다. 하루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밤... 메일 야곱의 돌베개



특 징
- 코골이 예방
- 목주름 예방

숙면은 양보다 질... 만가지 보약보다 쾌적한 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수면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만들어진 목주름 예방 목베개 바로 혈액순환개선이 되도록 설계된 목주름 예방 목베개입니다.



목회서신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최근에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늦은 저녁시간에 위로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갔다. 너무나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짓는 자매님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리빙룸 소파에 앉아서 남편의 물건들을 두루 두루 살펴보는 가운데 유난히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시간 전만 하여도 신고 다녔을 신발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발을 두고 떠난 것이다. 어디 신발이겠는가? 그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죽음과 함께 떠난 것이다. 햇빛으로 인하여 생긴 나무 그늘은 해가 지면

사라진다. 나무그늘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생 자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조들과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성경진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 들어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그들은 잠깐 자

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시90:5-6). 주어진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요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죽음이 찾아오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은 버려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증거하였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히1:10-11).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은 모두 다 사라진다는 말씀이다. 사라지는 존재를 죽여버리는 존재들을 붙잡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고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삶에 자신의 영육을 위하여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세상 속에 버려지는 것 이란 말이다.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과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에 대한 확증적인 인식이 없으면 짧고 귀중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낭비하며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것이 의미있게 산다고 스스로 위안 하려고 하지 말라.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음과 함께 허망함으로 끝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이거나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창조물들을 당신 자신의 육적 만족과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멈추

고 영원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다. 영원하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가져갈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분 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와 관련하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대해 막연히 행복한곳, 좋은 곳 정도로만 생각하려한다.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단순히 행복한 곳, 좋은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영원을 기다린다면 찌들고 찌든 세상 삶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약삭빠른 속셈일수도 있다. 당신이 소망하여야 할 영원한 하나님나라는 힘든 세상을 피해서 편히 쉬고자 하는 도피적 정도가 결코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나라는 영광으로만 가득찬 곳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그리스도시

다. 주 예수그리스도 주변에 천사들이 영광스런 모습의 주 예수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계4:8).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의 핵심은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 예수그리스도이다. 막연한 행복과 원이 아니라 주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분(주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완전한 하나님나라에서도 그분(주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주 예수그리스도는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주 예수그리스도를 삶의 전부로 삼지 않는 죽음에 대한 사색과 철학과 죽음에 대한 이런 저런 준비는 그저 덧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영광의 주 예수그리스도를 초점하고 그분을 갈망하라. 그것이 곧 영원에 대한 참 소망이다.



LA총영사관저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픈하우스를 가졌다. 사진은 총영사관저에서 신연성 총영사(왼쪽에서 네번째)와 교계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LA총영사관저 문화외교 공간으로

20일 첫 공개...사랑의 쌀나눔 행사 견해

지난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LA 총영사 관저가 20일 한인들에게 공개됐다. 관저를 개방한 신연

성 총영사는 관저를 문화외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관저를 찾은 LA 평통 관계

자들이 소나무를 기념 식수했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은 사랑의 쌀나눔 운동을 홍보했다. 이날 남가주교회 박효우 회장이 신 총영사로부터 성금을 받았다. 신연성 총영사는 "총영사 관저를 새롭게 오픈하는 행사를 열면서 사랑의 쌀 전달행사도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연말을 맞이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우 남가주교회회장은 "총영사관저 오픈하는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겸해서 했다. 총영사와 밝은 미래재단에서 전달식 함께 했다. 아름답게 꾸며진 총영사관 오픈식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먼저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앤디황, 미 첫 한인경찰국장 자리 올라 워싱턴 주 한인밀집지역 페더럴웨이 시

미국 본토의 첫 한인 경찰국장이 워싱턴 주 페더럴웨이에서 탄생했다. 집 퍼널 페더럴웨이 시장 당선자는 19일 저녁 페더럴웨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인대상 시정보고회에 참석, 자신이 시장에 취임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앤디 황(48) 현 경찰부국장을 경찰국장에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경찰관 경력 27년째인 황 경찰국장 내정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경찰국장에 취임하는 앤디 황 자는 한인 밀집지역인 페더럴웨이 시

경찰국에서만 17년반을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경찰부국장에 임명된 그는 7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셈이다. 세인트 마틴스 대학에서 학사, 피닉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공부하는 경찰관으로 불리는 황 경찰국장 내정자는 지난 1988년 올림피아 경찰국에서 공식생활을 시작, 1996년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창설멤버로 옮겨와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려서 부모를 따라 이민 온 15세인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한인 주민들이 연루된 사건·사고를 도맡아 처리해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1면에서 계속〉 주강사로 김성길 목사(시온소교회), 김중순 목사(꽃동산교회), 장영춘 목사(분지 발행인)가 단에 올랐으며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김만형, 김해천, 김주경 목사가 각각 강의를 맡았다.

4. 37회 KAPC총회 전통, 영명민 목사 총회장 선출(제 1435호 1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제 37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영명민 목사(남가주/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를, 부총회장에 정관일 목사(캐나다/토론토가든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으며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진행됐다. 첫날 회의를 인도할 예정이었던 김남수 총회장은 36회 총회 당시 벌어졌던 공금횡령 문제가 제기돼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영명민 부총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인도했다. 또한 파행의 원인이었던 서가주노회 문제로 인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37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이야기 하듯 KAPC총회는 진통 끝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문제가 됐던 서가주노회는 1년간 사고노회로 결정돼 1년간 총회

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한편 총회 셋째 날 저녁 속회에서 사고노회로 결정된 서가주노회(노회장 서종천 목사)와 일부 총대들은 총회결정사항에 반발해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이운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교단상임발전위원회를 비롯 전직총회장들을 제명했다. 이에 대해 총회는 비상총회에 대해 총회이탈자들로 규정했으며 총회첫날 소동을 일으킨 총대들과 함께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5. 선교연회로 출발하는 기갑미주특별연회(제 1436호 9면)



감동선거 문제로 LA와 NY으로 갈라졌다가 지난 2월 하나가 됐던 기갑미주특별연회가 석달 만에 다시 두 개의 선교연회로 갈라지게 됐다. 연회 둘째 날, 1시간 여 열띤 토론을 벌인 기갑미주특별연회는 '두개의 선교연회로 나눠 각자의 연회행정을 펼치되 오는 10월 임법의회에 두 개의 미주선교연회 설립을 청원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며 결의한 후 연회 폐회 이후 모인 대책위원회에서는 10월 임법의회에서 두

개의 선교연회 임법정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각 측의 명칭을 '미주특별연회 LA', '미주특별연회 NY'으로 부르기로 하고 자율적으로 실행위원회 등의 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회에서 은퇴한하예배와 목사안수식이 함께 열렸으며 예정됐던 감리사 선거는 무산됐다.

6. 6.25 한국전쟁 맹활약 S.S. 레인 빅토리호(제 1438호 1면)



1950년 한반도에 발발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증기선 S.S. 레인빅토리호(Lane Victory)가 현재 샌피드로 항구에 정박해 전쟁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인빅토리호는 한국전쟁에 참전 원산함남 철수작전에서 맹활약, 피난민 7,010명을 구조한 '한국의 승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레인빅토리호는 상선이었지만 전쟁 당시 군용으로 사용됐고 원산함남 철수작전 당시 산항에 도착했을 때 배안에서 한 명의 생명이 탄생돼 피난민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는 7,010명이 구출된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BONSTRONG supplements,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bottles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a pilgrimage mission trip to Holyland, including details about the itinerary, cos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hurch.

Advertisement for Dynamics, an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offering athletic gear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store in Jericho Park.

Advertisement for LA Guest House, a hotel and restaurant, featuring a photo of the build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Advertisement for Hanna Flower Shop, offering various floral arrangements and gift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a digital media service, offering CD/DVD burning, printing, and other digital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

Advertisement for Word of Life Books, a Christian bookstore, offering a wide range of books and religious material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

Advertisement for LA Guest House, providing details about the hotel's location, ame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uests.

동부교계 기사판



“기도로 시작한다” ...신년금식성회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 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

신년금식 기도성회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주최하고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후원하는 신년금식 기도성회가 2014년 1월 1일(수) 저녁 5시부터 3일(금) 정오까지 포코노 파인힐 수양관(Pine Hill Retreat Center)에서 개최된다.

교역자 청빙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청년부 담당 파타입 교역자를 청빙한다.

베이사이드 성서원 개강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주최하는 베이사이드 성서원이 2014년 1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열린다.

해외기독교문화동우회 2014년 신년하례식
해외기독교문화동우회(회장 김길홍 목사) 2014년 신년하례식이 2014년 1월 13일(월) 정오 플러스 금강산 식당 지하특실에서 열린다.

“믿음과 겸손 아름다운 연합으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후원이사회 합동 송년감사예배

뉴욕장로성가단과 후원이사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송년감사예배’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 플러스 대동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뉴욕목사회가 지난 19일 첫 임실행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 개최를 통과시키고 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를 선임했다.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병원선교회 한국양로원서 성탄잔치
소외된 곳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전달

뉴욕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가 연말을 맞아 매년 개최하는 성탄 노인잔치가 지난 21일 롱아일랜드 한국양로원에서 열렸다.



뉴욕병원선교회 한국양로원을 방문해 성탄잔치를 베풀었다.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 광고, 폐회기도 및 오찬기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분기별 회계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인수인계 시 감사가 동석하도록 하는 의견이 결의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병광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 설교 김수태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엘피스찬양선교단 필리핀 이재민(선교사 후원음악회를 마치고 찬양단과 순서맡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찬양으로 선교...하나님의 긍휼 전달
엘피스찬양선교단 필리핀 이재민/선교사 후원음악회

엘피스 찬양선교단(단장 김정길)이 하이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 및 필리핀 선교지 후원을 위한 찬양음악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저녁 뉴욕서울장로교회(담임 신우철 목사)에서 열린 음악회는 엘피스 찬양선교단과 게스트들이 참여했다.

김정길 집사의 진행으로 시작돼 엘피스밴드가 ‘모두 다 드려요’와 ‘천사 찬송하기를’을 연주했고, 심어 송라이터 강지담 자매가 자작곡 ‘Let Me Be The Light’를 밴드의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보였다.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감사안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홍성교회, 동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새천년교회, 새신앙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베델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러지교회, 새생명선교회, 세계소망교회,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비안침례교회, 요셉선교회, 일서크리스천교회, 은혜안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LA여성선교합창단 송년파티 노숙자 위한 선교 헌금 전달



LA여성선교합창단 송년파티가 할리우드 소재 Loews Hollywood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년파티에는 노숙자 후원금을 본사에 기탁하는 순서도 가졌다. 원안은 이날 행사진행과 통역을 맡은 최대순 목사 단장

올해 12주년을 맞는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사모)이 18일 오전 12시 할리우드 소재 Loews Hollywood 호텔에서 송년파티를 열고 노숙자 후원금을 본사에 기탁했다. 동 합창단은 송년파티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선물을 생략하고 성금으로 7백 달러를 마련한 것이다.
송년파티는 1부 예배, 2부 만찬, 3부 송년파티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최정직 단장의 사회로 시작된 1

부 예배는 조철일 목사 기도(멜라넬비아교회 원로), 성경봉독 김성숙 권사, 말씀 Rev. Carton Rhoden(제일침례교회 담임), 통역 최대순 목사(일산호수교회 원로)가 맡았다.
말씀을 전한 Carton Rhoden 목사는 "무엇을 하느냐?"(마25:14-30)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하고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여진 목사(성경통신대학원 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LA여성선교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각장애자 각막이식 수술비, 러시아 고려인

선교센터 건축기금, 미주복음방송, 정신치료사역 등을 후원해왔다.
한편 본지는 노숙자 단체를 모색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주최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출연진들과 동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베데스다대 총동문회 주최 콘서트 성황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최명상 목사)가 주최하고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가 주관하는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8일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1부 클래식 2부 CCM으로 나눠 진행됐다.
클래식 공연에서는 2개의 플루트와 피아노 협주(플루트 이연신, 채주혜, 피아노 최유경), 바리톤 권영대 교수, 클라리넷 티베 교수, 테너 피터

전 교수, 바이올린 박운재 교수, 2대의 피아노 협주(조에스터 교수, 김지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
CCM 공연에서는 색서폰 연주자 켈빈박의 연주, 베데스다 음악과 학생들의 중창, 재학생 강현선과 박수진의 보컬, 본교 실용음악과 교수들의 무대로 이어졌다.
이날 콘서트는 모든 출연자들이 본교 주요 교수의 지휘에 맞춰 축복송을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푸드뱅크 자원봉사자상 수여식 1주 평균 5백 명에 혜택...타민족 50% 수혜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케더 린문) 푸드뱅크 자원 봉사자상 수여식이 19일 오전 10시30분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케더린문 소장은 "푸드뱅크 사역은 상당히 힘든 사역이었다.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기관차원에서도 재정적 인력 어려움으로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봉사자들이 3년간 지켜줘 진행시킬 수 있었다"며 "푸드뱅크 사역으로 인해 혜택 받은 자들은 1주 평균 5백명이었고, 타민족까지 퍼져나가 지금은 타민족이 50%가 넘었다. 이 사역이 잘 이뤄질 수 있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은 1부 예배에 최 훈 목사(주님의교회)가 기도를, 원영호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대행)가 설교했으며 박창형 한인연장자센터 이사가 '연장자센터의 봉사자의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축도했다.
2부 봉사상 수여식은 봉사상 수여식과 단체상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그레이스유(한미연합회)와 이재철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행정 담당), 주디추 거주연방상원의원이 격려사를 했다. <박준호 기자>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미니스트리 주최 크리스마스 파킹랏 콘서트가 20일 저녁 거주영아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예수님 오셨던 마구간 느낌... 텐트미니스트리 주최 크리스마스 파킹랏 콘서트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미니스트리(대표 방다니엘 전도사)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킹랏 콘서트가 20일 오후 7시40분 타운 내 거주영아학교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노 클라라김, 건반연주자 전찬환, CCM가수 최윤영이 출연했으며, 사랑의선교회 대표인 느헤미야공 선교사가 특별출연해 기타연주를 선보였다.
유흥문화에 젖어있는 한인 타운 한복판을 거룩한 거리로 엮어나가 고자 결성된 텐트미니스트리의 크리스마스 파킹랏 콘서트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무대를 마련해 이날 공연장을 찾아온 자들이 생소하지만 색다른 분위기 속에 펼쳐진 콘서트 무대에 젖어 들어갔다.
파킹랏이라는 공간이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출연자들의 수

준 높은 공연으로 청중들은 출연자의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들의 노랫말 한소절 한소절을 따라 부르기도 했다.
공연을 마친 후 주최측에서 마련한 핫드그와 커피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텐트미니스트리의 사역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 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출연한 최윤영 씨와 전찬환 씨는 "공연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꾸며진 무대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마구간이 생각이 났으며 따스한 느낌을 받게 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푸드뱅크 자원 봉사자 상 수여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은혜한인교회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성정의 기동성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2014년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월) 진유철 목사(화/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수/나침반교회 담임), 박희민 목사(목/나성영락교회 원로), 엄영민 목사(금/오렌지제일장로교회 담임), 이서 목사(토/미주비전교회 담임) 등이다. 집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문의: (714)446-62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설립11주년 감사 및 임직식 예배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양성필 목사)는 교회설립 11주년 감사 및 임직식 예배를 1월 5일(주) 오전 10시(2부 예배)에 실시한다.
▲문의: (626)912-6600

사랑의쌀 나눔운동 제2차 배부실시

사랑의쌀 나눔운동 제2차 배부가 벨리 지역은 27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벨리연합감리교회, 28일(토)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LA지역은 나성순복음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풍성한교회, 글렌데일과 버뱅크지역은 중흥선교회, 벨리지역은 주안예교회, 패서디나와 아카데미 지역은 드림교회, OC지역은 나침반교회, 은혜한인교회다.
▲문의: (310)691-4426 남가주교협 총무 홍성관 목사, (714)399-0210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이성교제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오는 29일(주) 오후 3시부터 '이성교제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박수용 장로.
▲문의: (213)448-8316



사랑의쌀 나눔운동 6차 후원금 전달식

사랑의쌀 나눔운동 제6차 후원금 전달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약정금 포함 총 75,173,53달러로 현물로 쌀 48포가 모금됐다.
한편 21일 오전 11시부터 사랑의쌀 나눔운동 1차 배부가 시작됐으며 LA총영사관과 은혜한인교회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Yes Dry Cleaning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족,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예장합동, 한기총 탈퇴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동의 못해”

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임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기총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지목한 류승우 변승우 목사를 받아들인 데 이어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박윤식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까지 이단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임원회는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 회관에서 긴급 임원회를 개최하고 “박윤식 목사는 이미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자로 규정한 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기총이 소속 교단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이단 세력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기총 탈퇴 이유를 밝혔다.

평강제일교회는 2005년 제90회 총회 때 서북노회가 교단에 가입시키려 했으나 총대들이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당시 총회는 ‘평강제일교회는 이단교회로 박윤식씨는 이단’이라는 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예장 합동은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를 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임원회가 탈퇴를 결의함에 따라 남은 절차와 무관하게 사실상 탈퇴가 확정된 셈이다.

되돌아보는 2013 NGO

올 한해 NGO들도 많은 일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후원과 모금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NGO의 지평을 넓혔다. NGO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흐름을 정리해 본다.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조심스레 재개

대북 지원 사업 위축, 필리핀 긴급구호 활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올해는 새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NGO들의 북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통일부는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일부 NGO의 북한 방문과 밀가루 등의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여름에는 북한 평안남도의 폭우로 청천강이 범람하면서 수재민이 발생해 북한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쌀

은 물론 밀가루조차 제외됐다. 약품과 옥수수 등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금액이 제한적이었다.

이마저도 하반기에는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한 NGO 관계자는 “올해 다시 찾은 평양이 활기찬 모습에서 살짝 놀랐다”며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확대돼야 한

다”고 말했다.

② 필리핀 긴급구호

11월 8일 필리핀 레이테섬 일대에 닥친 사상 최악의 슈퍼태풍 하이에니 1만여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긴급구호 단체들은 세계 어느 단체 못지않게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유엔과 협조 아래 체계적인 구호 작업을 펼쳤다. 국내 모금에서도 ‘한국교회 필

리핀 재해구호 연합’이 결성되었다. 재해구호연합의 김종생 사무총장은 “아이티 대지진과 일본 대지진 등 앞선 재난 당시 협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NGO와 한국·필리핀 교회, 선교사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타클로반 등 피해가 큰 지역 중 복구작업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반기에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쳤던 시리아 난민 사태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지지부

진하면서 모금활동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③ NGO 원로들의 잇따른 별세

‘사랑의 빵 저금통’을 처음 만든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 총재가 8월 30일 별세했다. 월드비전 유엔아동기금 등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했던 윤 전 총재의 장례식은 34개 NGO 공동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기아대책 창립 멤버

인 정정섭 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한국YMCA 사무총장을 지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도 이달 18일 별세했다. 한국 NGO의 전환기와 성장기를 이끌어온 원로들의 잇따른 타계는 한국 NGO운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④ 교회, NGO 설립 활발

서울 서빙고동 은누리교회가 설립한 NGO ‘더멋진세상’이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도 예배당 이전을 계기로 NGO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형 교회들이 직접 NGO를 설립하는 흐름이 더욱 확산된 한 해였다. 만나교회가 시작한 ‘월드휴먼리서치’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굿피플’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NGO 설립은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교회와 구호·개발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교연 “박윤식 목사 등 이단관련자 재확인”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한교연 바수위·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류승우·박윤식 목사 등이 이단 관련자임을 재확인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교연 바수위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최근 류 목사 등을 이단에서 해제한데 대해 “한교연 회원 교단 및 여러 교단에서 이단을 해

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원교단들의 견해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수위는 또 “정통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혼미케 만드는 이단 및 사이버 집단을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 검증 없이 해제하는 것은 기독교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전도의 문을 막는 행위”라며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기총 흥재철 대표회장 “예장 합동 탈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흥재철 목사가 19일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 임원회가 지난 18일 한기총 탈퇴를 결의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흥 대표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동 측 본인들의 화근을 한국교회 앞으로 돌리고, 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합동 교단에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흥 대표회장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예장 합동 교단을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임을 자임했던 한기총의 위상도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에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의 활동에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공개토론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최근 한기총이 결의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이단해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교계 연합기관이 이단을 해제할 자격이 있는지는 지적에 대해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 시절에도 그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기총 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준비위원장에 대해 흥 대표회장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공석을 메울 것이며, 차기 대표회장에 당선되면 내년 1월 초교파적으로 WEA 준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이라며 “세계교회협의회(WCC) 참여 인사와 교단도 함께하는 다층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교연 위상강화에 내가 책임자”

제3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책발표 및 공청회

“다양성의 조화를 통해 모든 교단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기호 1번 권태진 목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자세로 회원 단체 간 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기호 2번 한영훈 목사)

대정부와 대사회, 대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종의 정책자문기구인 ‘싱크 탱크’를 만들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19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3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책발표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교회연합기구인 한교연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간 향후 관계, 양기구 통합에 관한 후보들의 견해는 들을 수 없었다. 한교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의 답변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답변을 거부토록 하면서 맥 빠진 행사를 자조했다.

권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의 밑줄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서로 ‘다른 것’은 수용해 나가되 ‘틀린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교단의 다양성은 함께 아우르되 이단 등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이어 한국교회의 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계를 제작, 학교와 교회에 보급할 계획 등도 소견서를 통해 밝혔다.

권 목사는 예정합신 총회장 및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고, 군포제일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한 목사는 한영신학대 총장 및 예장한영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한 목사는 한교연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대표회장으로 섬기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현안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내부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

장위제일교회, 김기원 목사 원로추대 예배



서울 장위동 장위제일교회 김기원 목사(사진)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가 21일 오후 교회 본

당에서 교계인사 및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예장 합동 소속의 김기원 목사는 1994년 장위제일교회로 부임한 이래 국내외 활발한 초정집회 인도와 함께 총 112편을 출판하는 등 문서선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김기원 목사는 “나름 열심을 다한 목회였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데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더 기도하고 감사로 살면서 맡겨진 남은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동안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추대식, 축사와 권면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원 목사의 사퇴로 진행된 예배에선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설교했으며 안명환(예장합동 총회장), 신신목(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양병희(예장백서 증경총회장), 원팔연(기성 증경총회장)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장위제일교회 흥연표 장로는 “김 목사님은 노약자, 저소득층, 환자들을 심방하며 그들을 기도로 돌보셨다. 이같은 이웃 사랑 실천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좋은 교회로 자리잡게 했다”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에 매진하실 것을 믿는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세군 자선냄비 올해도 ‘역’ 천사 나타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해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 거액의 기부한 익명의 천사 ‘신월동 주민’이 남긴 말이다.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는 서울 명동 임구에 설치된 자선냄비에서 1억원짜리 수표와 자필편지가 든 봉투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봉투에는 ‘신월

동 주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22일 저녁 현장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했던 최수진 사관학생(신학생)은 “오후 7시 40-50분 쯤 팡파라가 수 이사벨이 모금을 위해 공원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시끌벅적할 때, 깔끔한 코트 차림에 평범한 아버지 같은 인상의 60대 신사분이 자선냄

비 앞으로 걸어오셔서 ‘신월동 주민’이라고 씌여진 봉투를 건네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전했다.

지난해와 2011년에도 명동의 자선냄비에서는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가 발견됐다. 지난해는 1억570만원, 그 전 해에는 1억1000만원이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일)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작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레위기 21:1-9
(2) 신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 고린도전서 15:1-10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에는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필기교사를 치를 것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만 사진 2장
7) 고시료: \$15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슬람권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정보

지역별 성경 반포 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발표한 '2012년 성서 반포 보고(The

지시커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25명의 성경교회 크리스천 중 8명 정도가 이슬람으로 돌아갔다. "지역 주민들은 남은 크리스천 개종자들

지역별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합계
아프리카	6,182,448	189,503	523,708	7,111,808	14,007,467
아메리카	14,704,060	15,142,725	8,550,553	305,688,834	344,086,172
아시아/태평양	10,088,641	9,133,236	9,351,204	41,579,501	70,152,582
유럽/중동	2,466,046	2,406,451	2,658,565	1,855,259	9,386,321
합계	33,441,195	26,871,915	21,084,030	356,235,402	437,632,642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2'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46개 성서공회들을 통해 반포된 성경의 부수는 약 3,340만 부로 2011년의 3,210만 부에 비해 약 4% 증가했다.

기독교 활동 중지시키위한 자경단 그룹 형성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 자경단 위원회가 형성됐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기독교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역교회의 건축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중지된 채로 남아있다. 위원회는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데 이들은 무슬림 장로들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다.

지난 9월 정부 관계자는 탕가일(Tangail)성경교회의 건축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탕가일은 수도 다카(Dhaka)에서 북쪽으로 100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 탕가일교회의 건축은 9월 8일 시작됐다. 교회는 25명의 크리스천들이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모임을 가져왔다. 그러나 5일이 지나고 지역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200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건축 장소에 찾아와 건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 지역 이슬람에 소속된 이들이 1천명 이상 모였다. 이들 중에는 72명의 이맘(Imam, 이슬람 종교지도자)이 포함됐고 이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의장은 그들이 자경회를 구성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막으려고 한다고 '월드와치 모니터(World Watch Monitor)'에 알려졌다. "기독교 전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순진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될 만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돈을 주었고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의장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와미 연



중지된 탕가일 교회 건축 현장

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정치 지도자들과 학교 교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크리스천 활동을 중

로 돌아오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지역 무슬림들은 사람들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장은 말했다.

(출처: WWM)

네덜란드에서 추방 및 강제 송환 위기 아프가니스탄 개종자

모스타파 나자피라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개종자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네덜란드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 네덜란드 이민 당국은 그의 이민승인을 거부했고, 이후 4개월간 이민국 수용시설에 갇혀 있다. 이는 언제라도 추방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즉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내지게 된다는 의미다. 돌아가면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당국의 문제도 있다. 같은 이민국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다른 이슬람신자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타파도 원래 이슬람 신자였다. 그러나 9개월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언젠가 성경을 우연히 입수해 읽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답을 얻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매우 고심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종교적 극단주의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나의 아버지조차도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알게 되자 나를 죽이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것이 산개서 내게 위임하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선교소식)

이슬람권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1) 이슬람권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성탄의

특별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중에서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각 지역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성탄 기념예배를 보충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소서.

2) 핍박의 땅 이슬람권에 오히려 복음전파가 활발하여 더 많은 성경이 보급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번포 사역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전파하는 자들과 받아보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반드시 보아야 할 자들에게 성경이 임하시고 깨달아 지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 성경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는 자들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소서.

3) 2013년 중동지역의 극심한 핍박에도 끝까지 남은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신앙 때문에 치르는 대가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환난으로 연단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소서!

4) 이슬람권 선교사님들께 2014년 새해 새 힘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복음 전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5) T국 H 선교사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합당한 장소와 재정을 허락해 주소서.

한국 및 전 세계의 이슬람화 저지와 이슬람권 중보기도운동 위한 기도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1) 필리핀 이슬람 반군이 40여년의 분리독립전쟁으로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정교일치를 추구하는 이슬람의 실체를 바로 알고 원리주의 이슬람에 통로를 열어주지 않게 하소서.

2) 이슬람이 인구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유럽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지혜로운 다문화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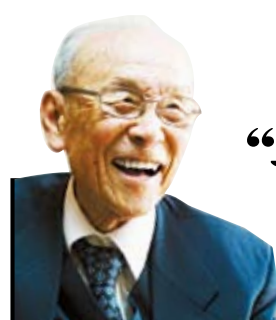
3) 정부와 언론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 재계 지도자들이 금융 지라도 불리 수쿠크에 대해 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시며,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장래를 위해 판단하게 하소서.

4)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달되며, 이슬람의 실체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5) 무슬림의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이 정작 무슬림들을 억압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돕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진정한 무슬림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6)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급진 이슬람이 이 땅에 터잡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소서

7) 2014년도 제2기 역라마단 단기선교준비를 성령께서 주관해 주소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쫓아내는 강력한 기도의 행진들이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로 이어지게 하소서.



방지일 칼럼 (22)

“본대로 들은 대로”

숙련공

과실은 그 나무에서 잘 익은 것이 맛이 바로 들어 있다. 선 것을 따서 인공을 가하여 익힌 것은 제 맛이 날 수 없다. 매일 먹는 밥도 정성스럽게 지은 밥, 뜬을 드린 밥이 맛있다. 뜬 드리지 않은 밥은 먹기는 먹되 그 밥맛은 아니다.

사람도 익어야 한다. 공인들이나 기술자들도 오래 익혀 익은 기술자를 숙련공이라 한다. 숙련공 하나에 그에게 배우는 제자가 많이 생긴다.

교회성역에 있어서 한 60년 지나보니 익숙히 익어야 된다고 절실하게 느낀다. 졸속한 뻥뻥으로 인물을 판단하다가 그만 실해하게 된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잘 익어야 한다. 설익은 이들이 그 자신도 큰 손해를 보고 교회에도 큰 손해를 초래한다. 약간의 능력이 가지고 지식이나 가지고 교회 봉사 운운 함은 삼가야 한다. 교회적으로 임명 혹은 피택 할 때에 익숙히 익혀가지고 과실을 따는 것같이 할 것이다. 장로를 택하는 것은 교인들이 행하는 일이라 2/3의 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대중이 잘 판단도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지라 지도자는 신중하게 잘 익도록 가꾸는 일이 먼저 할 일이다. 다른 이보다 좀 조속해 보일수도 있지만 더 익혀야 할 것을 통찰함이 필요하다.

과실이 잘 익은 데는 첫째가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익은 기간이 있다. 육속부달(欲速不達)이란 말이 있거나 속히 익히고자 하면 그 익음의 본질을 위배함이다. 익은 것 같되 덜 익은 것이다. 그 지역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 위도가 북에 가까울수록 조기 성숙함으로 맛이 덜하다. 장기간 성숙할수록 맛이 더 좋다. 칼로리의 함축량이 많아진다. 익히는데 기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고한 이차 말찌니"(딤후3:6) 분명명 말씀도 있는 바이다. 기간이 된 후에야 제 맛을 내게 익는 것이다. 어떤 때는 피선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그 봉사하고자 하는 심정이 고맙기도 하지만 벌써 그 심정이 익지 못한 증거이다. 흔히 교회에서 선거하는 일에서 분규를 초래함을 본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 투표했다. 그 교회 내규로 총투표의 반수가 못되니 당선 못된 공포를 하였다. 그런데 그 본인은 노회 규칙으로 당선된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노회에 상소되어 문제가 되었다. 유효투표만 기권과 무효표를 제했으니 과반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교회 내규건 노회의 규칙이건 이런 일로 노회에 자기 교회의 부당을 소원한 함이 벌써 덜 익은 증거다. 내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에 노회 규칙대로 하게, 내규를 수정하고 다시 투표하여 노회의 권위로 세우고 이미 공포한 바이니 당회의 권위로 세워 공포를 취소도 어려우니 내규를 고쳐 이제부터 노회의 규칙대로 하되 한번 더 해서 유효투표의 과반으로 하는 투표를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다시 하면 그 과반도 못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노회 규칙대로 당선함을 개정 공포 유효한다고 상회가 감압적으로 그렇게 지시한다면 상회에 복종하여야 할 지 모르나 그런 설익은 사람을 임직한다 하되 그 자신도 손해요 교회도 손해뿐이다.

익은 데는 양광이 적당하게 받아져야 한다. 잎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과실은 기간이 되되 맛이 양광 많이 받은 과일과 다르다. 신앙도 신령한 빛을 많이 받는데 비례하여 잘 익는다.

이미 임직을 받은 이라도 내가 잘 익었는가를 스스로 성찰함이 필요하다. 목사 자신도 내가 잘 익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일광을 잘 흡수해 받은 과실 같이 영의 빛을 깊숙하게 바로 받아야 한다. 누구를 판단하는 임직에서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그런 점이 보여진다. '좀 익어야 하겠군' 교회 앞에 반 농담 같이 조크를 한다. '설익었다' 단상에서 그런 조크를 함도 익지 못한 증거다. 자신의 사생활을 때로 단상에서 토함도 익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나이는 어지지만 주의 사람은 익혀져서 쓰여져야 한다. 설익은 자세 설익은 말들이 때로 들려진다. 나이 든 자라도 설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만 잘 익어야 할 것이다. "숙련공!" 이 말이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8491~5, Fax. (062)522-4834 500-170 경곡1동 신일기독교회관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19~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곡2동 교당길 신일동구 공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외국전화)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대 사회 Tel. (0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월요일을 위한 새벽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2-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02)2-999-999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화동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2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관악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2-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2동 177 29(암살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사대문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요신학교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뱅크비발리데이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기도회: 새벽 5:30, 7:30 금요예배: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1263-1264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예배: 오후 3:30 유. 초. 중. 고. 중. 1부예배: 오후 9:00(주말)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nk@paraguay.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0)

“차세대 교육목회 방향 재설정”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차세대 교육목회 방향 재설정”의 네 가지 원칙들 중 첫 번째 “차세대 교육은 차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이라 함은 한인 이민 1세대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1.5세, 2세, 혹은 3세대 모두를 통틀어서 한인 차세대라 일컬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차세대 교육이라 일컫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은 이제 단편적이라 할 수 없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차세대 교육은 1세대의 자녀들인 1.5세와 2세들을 위한 것으로 대개 이해되어왔으며 차세대 교육은 1세 중심의 한인교회 안, 교육부 산하에서 1세 교인들의 자녀들인 1.5세 2세들을 위한 유치부, 유, 초등부, 중,

가 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우 힘겨워 해왔습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1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왕왕 미국인 사역자들을 모시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세대 목회자들이 부족해왔거나 이제 우리의 차세대들이 그 연령적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세대적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또 계속 넓어질 터기에 더더욱 차세대를 섬길 차세대 목회자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목회자들은 아주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에 더더욱 “차세대 목회자들의 의한 차세대 교육목회의 실현”을 차세대 목회의 상을 세워가는 첫 번째 원칙이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 교회의 교육부서이든, 1세 교회안의 EM 목회이든, 2세 중심의 독립적 교회이

든, 다문화 교회이든을 막론하고 차세대 목회자에 의해 모든 교육목회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으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Best Scenario)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차세대 교육목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들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 해답은 모두 알고 있는 그 답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차세대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1.5세, 2세 목회자들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인지되어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 이제는 전체 한인교회 목회의 새로운 기초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고, 새로운 차세대 목회의 상을 세워 가야 하고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차세대들 안에서 차세대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Nurturing next generation pastors from within)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을 일구어가는 사명에 첫째 가는 선결과제를 명심하면서 말씀합니다. 일단 목회자가 되는 것은 소명의 문제이지 교육으로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업 및 직업외의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교육하는 일이 왕왕 있어왔습니다.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격려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이 지금껏 해온 교육방향을 선회하고 지양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차세대 교육목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목회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되어 사역의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의 경우, 한인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이 보장되는 미국교회들로 빠져나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아 그들이 어떤 사역의 장에 있던 모두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므로 마땅히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그들이 한인교회 차세대 교육에 열정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라면 그 열정과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한인교회가 나서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차세대 교육목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차세대 교육목회 선결과제는 차세대 목회자 배출교육 소명자 찾아 격려 후원... 미국교회로 안가도록 충분지원

고등부 교육이라는 체제아래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사역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전도사 혹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나 미국에 이민온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미 미국문화에 익숙해진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이러한 사역자들은 문화적 언어적 괴리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전인 사역자가 아닌 학업이 주가 되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며, 미국에서 이민목회에 뜻을 두었더라도 그 목회는 한인 1세대들을 위한 성인목회이지 교육부서들을 섬기는 교육목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현장은 현실적으로 그분들 외에 대안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차세대들을 교육하기에 문화적 언어적 괴리가 없는, 그리고 교육부서 목회와 성인들을 위한 목회 모두에 소명이 있는 1.5세 혹은 2세 목회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차세대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교회들은 비교적 1.5세 2세 사역자들을 모시는 데 문제

가 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우 힘겨워 해왔습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1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왕왕 미국인 사역자들을 모시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세대 목회자들이 부족해왔거나 이제 우리의 차세대들이 그 연령적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세대적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또 계속 넓어질 터기에 더더욱 차세대를 섬길 차세대 목회자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목회자들은 아주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에 더더욱 “차세대 목회자들의 의한 차세대 교육목회의 실현”을 차세대 목회의 상을 세워가는 첫 번째 원칙이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 교회의 교육부서이든, 1세 교회안의 EM 목회이든, 2세 중심의 독립적 교회이

든, 다문화 교회이든을 막론하고 차세대 목회자에 의해 모든 교육목회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으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Best Scenario)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차세대 교육목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들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 해답은 모두 알고 있는 그 답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차세대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1.5세, 2세 목회자들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인지되어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 이제는 전체 한인교회 목회의 새로운 기초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고, 새로운 차세대 목회의 상을 세워 가야 하고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차세대들 안에서 차세대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Nurturing next generation pastors from within)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을 일구어가는 사명에 첫째 가는 선결과제를 명심하면서 말씀합니다. 일단 목회자가 되는 것은 소명의 문제이지 교육으로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시4:1-3)

“경건한 자”란 히브리말로 “카시드”라고 하는데 “충애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1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는 고

백은 과거 어려울 때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즉 “relief”를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정 경건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축복합니다.

화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시4:2-3)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 삶의 특징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행을 구하겠는고(셀라)”(2절). 다윗은 헛된 일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결단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수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시4:4-5)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고자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다 나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속수무책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샘을 마시며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

말씀을 받고 심중에서 묵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서 고요히 반성하고 다시 나쁜 일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 깊이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돌아와 다시한번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목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시4:6-8)

경건한 성도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또 누리면서도 무엇인가 만족을 못하고 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다 나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속수무책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샘을 마시며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

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은 곡간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낮고 소중합니다. 내 곡간이 모두 빈다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모두 소유했더라도 그 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1-3)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른 아침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아침을 깨우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침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인 아버지의 집에 나와 새벽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두려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토 나의 심사를 통속하시어!(시5:1-3)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된 기도와 묵상과 같은 마음속 깊이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해아려 살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해아려주시고 살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특별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속하시어!”(1절)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의 모본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바른 것을 구했다면 응답하시고 만약 당연히 구했어야 할 것을 빠뜨렸다면 나의 마음을 해아려주셔서 부족한 것까지도 응답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주 갈멜산기도원 신년 축복기도성회

기간 : 2014년 1월 16일(목, 저녁)부터 23일(목, 저녁)까지
시간 :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기도원(인양·경화·LA)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성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한국 CBS, 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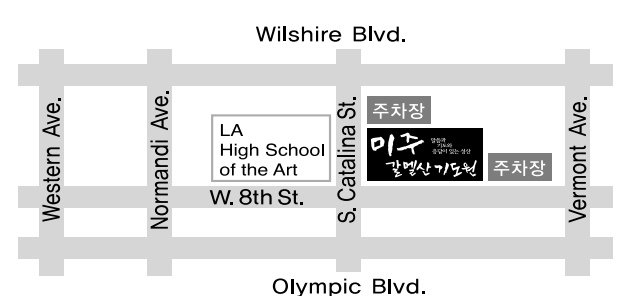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의

미주 갈멜산기도원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www.galmelsan.or.kr



프란시스 교황선출 · 이슬람극단주의 · 동성애진출...

(1면에서 계속)

4. 오바마케어 신앙단체들과 마찰(RNS)



연방 정부 샷타 운이라는 초극단의 사태까지 만들어낸 "오바마 케어" 시행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간의 힘겨루기에는 교회와 신앙단체들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많이 은폐돼 있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신앙단체들 간의 불일치는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이첩됐고(Hobby Lobby),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가 실용된다고 하더라도 시나 주 법원 차원에서 크고 작은 소송들이 연달아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다.

5.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의 이슬람의 역할과 조정(RNS)



허핑턴포스트가 2위로 선정한 파키스탄 소녀의 증언이 지구촌 이슬람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춘풍"으로 민주화 과정에 들어선 중동권에서는 이슬람의 역할이 국가마다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대통령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현 정권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제거시킬 만큼, 아직도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세력과 보편적인 이슬람을 믿는 세력 간의 갈등이 폭력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초 강경책으로 반란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리아 정권 역시, 수니파 반란자들과의 내전에서 점점 더 파국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과연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이슬람이 어떠한 역할과 조정을 담당하게 될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RNS가 선정한 6위에서 10위까지의 종교 뉴스를 중에서 기독교와 관계있는 뉴스들은 다음과 같다:

6. 화해와 비폭력의 상징,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95)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가 지난 12월 5일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등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 남아공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초대 흑인 대통령. 그는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흑인을 탄압하던 백인을 포용해 용서와 화합의 정치를 펴 흑백이 공존하는 새 남아공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현대 남아공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위대한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따라서 자신의 동족들을 피부색 즉 인종에 따른 차별이라는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시킨 현대판 모세로까지 추앙받았다. 아울러 구글이 발표한 '시대정신'(www.google.cotopcharts?zg=full) 올해 검색어 1순위에 마크되기도 했다.

7. 종교적인 이유나 갈등으로 상해와 심지어 생명

까지도 앓아가는 폭력이 국지전 형태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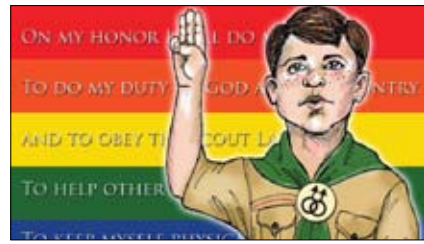
마안마에서는 극단적인 불교인들이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이집트에서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케냐 나이로비와 파키스탄 페샤워(기독교 중심 지역)에서는 협박성 메일이 범람하는 등, 여전히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많았다.

8. 미국유태인종 20% 이상 무종교인



퓨리서치의 랜드마크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적인 교육과 훈육으로 얻어야 할 미국 유태인들 역시 현재 일고 있는 무종교인 증가 현상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 이상의 유태인들이 유태교나 아무런 종교 없이 세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태인이라는 혈연적인 유대성은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착 유태교를 믿는 정통 유태인은 미국인 중에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다.

9. 미국 보이스카웃, 드디어 동성애자 받아들여



길고 지루한 논쟁 끝에 미국 보이스카웃 연맹은 마침내 동성애자를 스카웃 단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리더인 스카웃 마스터스 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톨릭 진영에서는 이처럼 보이스카웃에도 동성애자들이 진출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 리더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10. 보스턴 마라톤테러, 미국 무슬림들 비판



9.11사태이후,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테러인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를 감행한 2명의 젊은 무슬림 형제들에게,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는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대량살상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는 의도에 분노를 하고 있다.

결론으로, 2013년의 시작은 가톨릭 리더십의 변화로 시작돼 유럽이 아닌 최초의 제주이트 교단이자, 라틴아메리카 추기경 출신인 프란시스 교황의 행보에 미디어의 촉각이 곤두섰다. 프란시스 교황은 특유의 청빈과 자선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2013년 한해를 마감했다. 그리고 9.11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지구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슬람극단주의 세력들이 탈레반이나 무슬림형제단들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제검토되는 한해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본지가 선정한 2013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9면에서 계속)

레인빅토리 호의 활약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 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연상하게 된다. 1989년 퇴역, 현재 샌프란시스코 49인 부두에 정박해 전쟁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빅토리 호는 허리우드에서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

7. 남가주교협 뉴욕교협과 업무협약(MOU)체결(제 1440호 11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우철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5시 한인타운내 만리장성식당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업무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진우철 남가주교회협의회장이 집회 차 아르헨티나 방문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해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와 뉴욕교회협의회장 김종훈 목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여름 뉴욕일대를 덮쳐 많은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남가주교협이 2만달러를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교협은 △교협 본연의 업무 증진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 △상호 인적자원 교류 △이단 정보 나누고 대처 활동 △그리타 상호 교류협력에 가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8. 월드미션대학교 한국계 기독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제 1447호 9면)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는 지난 8일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WMU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됐다. 본교는 그동안 정회원 후보자격학교로 타 학교와의 학점교류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인준으로 인해 학점교류는 물론 석사과정 이수 후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졌다.

현재 WMU는 270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학위과정은 목회학박사과정, 신학석사, 기독교 상담학석사, 음악석사, 목회학 석사 등 대학원 과정이 있으며 학부과정은 성서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음악과 등이 있다. 학교측은 WMU가 영어권 학생유치를 위해 영어로 수업이 이뤄지는 영어트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9. 다민족 차세대 만남... 연합선교 다짐(제 1456호 9면)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교회연합) 주최 제 9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리아이엘교회 담임)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주제로 10월 19일, 20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Glad Tiding교회(담임 Forrest Beiser 목사)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 오전에는 다민족교회 중보기도자들 100여명이 합심해 미국의 재 부흥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통성기도 했으며 20일 저녁 2세 중심 선교 축제에서 Joseph Bryant 박사는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다함께 지상명령을 준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는 "금년대회는 특히 다민족 1세 2세대가 연립대 GMC 3개 대회인 올네이션스 연합기도회, 글로벌다민족 콘서트,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10. KWMC 제 26차 전국연차총회 폐막(제 1459호 9면)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 26차 전국연차총회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려 새 대표회장으로 김남수 목사를 선임했다. 또한 총회는 업무체결 외에 각 지역 선교사들이 참석해 선교도전과 세계선교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각종 특강들을 진행했다.

KWMC는 복미 등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대표하고 있으며 4년에 한번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의 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역시 4년마다 선교대회를 열고 있으며 KWMC 선교대회 중간에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과 함께 2014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 27차 연차총회는 12월 초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서삼정 목사)에서 열린다.

(편집부)

제 5차 사랑의 쌀 나눔 운동

2013년 성탄절

사랑의 쌀을 2차로 배부합니다

2013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지난 토요일(21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쌀을 한인 공회단체와 한인교회, 한인 사회봉사기관과 타민족 선교회 등 90여개 단체에 4270포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와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과 저소득층 등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을 2차로 배부합니다

LA 지역: 오전 11시-오후 2시

-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올림픽장로교회 (213-387-1700)
1700 W. Olympic Blvd., L.A., CA 90015
- 주님의영광교회 (213-749-45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풍성한교회 (213-381-9490)
2911 W. Beverly Blvd., L.A., CA 90057

OC 지역: 오전 11시-오후 2시

-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나침반교회 (562-691-0691)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글렌데일, 버뱅크 지역: 오전 11시-오후 2시

충현교회 (818-549-9191)
5005 Eden Hurst Ave., L.A., CA 90039

밸리 지역: 오전 11시-오후 2시

- 주안교회 (818-363-5887)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밸리연합감리교회 (818-456-3551)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 12월 27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 공동주최: LA총영사관, 오펜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미주(LA)성서회운동본부
● 주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총괄 상임 회장 한기홍 목사 ● 공동대회장 박효우 목사, 민경엽 목사, 신연성 총영사

알림 사항 제 5차 2013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위한 후원은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각 교회에서는 성탄절 헌금 중 일부나 사랑의 쌀 나눔 특별헌금을 통해 동참해 주시고, 한인 사회의 각 단체들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갖는 송년모임과 연말 행사에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분들은 아래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로 보내주시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pay to: CKCSC-사랑의 쌀)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ww.theckcs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churches3000@gmail.com

문의 (후원 및 배부)
남가주교협 총무: 홍성관 목사 (310)691-4426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 (714)699-0210